

# 도내 어린이 10명 중 9명 “방과후 수업·사교육 참여”

전교조 전북지부, 초등 4~6학년 대상 설문조사서

6학년 8시 이후 귀가 24.3%... 22.8% “놀 시간 부족”

고민은 공부·친구관계·외모·부모와의 관계 순

전교조 전북지부는 어린이날 103주년을 맞아 전북 어린이들 삶의 만족도와 비참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 4~6학년 1,785명을 대상으로 4월 21~2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10명 중 9명이 방과후 수업이나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늦은 귀가로 인해 10시 이전에 취침하는 학생은 35%였다.

또한 2명 중 1명은 하루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43.2%는 사용 시간을 규제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루 3시간 이상 놀 수 있다는 응답은 35.2%로 6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22.8%는 놀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것으로는 ‘친구들과 놀기’, ‘가족과 시간 보내기’, ‘게임’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10명 중 7명이 가까이 가족과의 대화시간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했음에도 규칙을 정할 때 의견을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는 학생은 고작 45%로 조사됐다.

계속해서 82.5%의 학생이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6~10명 구

분도 학급 학생들의 만족도가 88.2%로 가장 높았다. 행복지수 평균은 7.58점(10점 만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지수는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끝으로 학생들의 고민은 ‘공부’, ‘친구관계’, ‘외모’, ‘부모님과 관계’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리적 부담이나 스트레스 증가,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늦게 귀가고 놀 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어린이들의 답변에 마음이 아프다”며 “10명 중 1명의 어린이는 현재의 삶이 불행하다고 말하는데, 학업과 관계맺기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 이사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른들의 책임있는 대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대학 진수당 253호에 'AI스페이스'를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섰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 미래교육의 문 열다... 전북대, 'AI스페이스' 구축

고성능 노트북 등 첨단 장비 갖춰... 대학 구성원 누구나 생성형 AI 도구·에듀테크 기술 체험 가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AI스페이스'를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섰다.

이에 따르면 교육혁신본부(본부장 심재우)가 조성한 이 공간은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생성형 AI도구 체험 및 첨단 디지털 기술 체험 공간으로, 지난 4월 28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공식 문을 열었다.

전북대 진수당 253호에 구축된 'AI스페이스'는 고성능 노트북, VR/AR 키오

스크, Apple Vision Pro 기반 공간컴퓨팅 체험존, 대형 LED월 등 첨단 장비를 갖춘 실습 공간으로, 교수·학생·직원 누구나 Adobe Firefly, Midjourney, ChatGPT 등 생성형 AI 도구 및 에듀테크 기술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AI 기반 교수법 특강, 맞춤형 AI 콘텐츠 제작, 프롬프트 경진대회 등 실용적이고 몰입감 있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실천형 AI 인재 육성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AI는 교육의 방식과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이라며 “이번 AI스페이스 개소를 계기로 전북대가 디지털 교육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우 본부장은 “AI스페이스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실감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체험형 교육 공간”이라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열린 AI 학습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고도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서 교육감 “난치병 학생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

1형 당뇨·희귀난치질환

학부모 등 대상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일 2층 강당에서 도내 1형 당뇨 및 희귀난치질환 학부모 및 보건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난치병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교육청의 난치병 학생 지원 관련 사업을 안내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어려움과 보건교사 상황 등을 파악해 실현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학부모들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신청 서류의 간소화 등을 요청했다.

당초 1형 자녀를 둔 학부모는 “치료비보다는 연속혈당측정기 등 관리 기구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현재 1형 당뇨 소도품 및 관리기기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일 2층 강당에서 도내 1형 당뇨 및 희귀난치질환 학부모 및 보건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난치병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또한 보건교사들은 △학교·소방사·의료기관 연계 시스템 △보건교사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대책 △건강 보호학생에 대한 보건교사 연수 확대 방안 등을 건의했다.

서 교육감은 “보건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보건교사의 응급처치법 법적 보호 방안 등에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질환에 대한 이해 및 응급 대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에 대한 연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21년 12월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지난해부터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 및 지원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도전하는 청소년, 성장하는 전북’

제2회 청소년박람회, 15~16일 군산시

108개 체험 부스·프로그램 '다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5~16일 이틀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전하는 청소년, 성장하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청소년들이 체험 부스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일부 부스는 직접 운영하는 등 체험 중심의 축제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창의성과 리더십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람회는 △미래·진로 △지역·성장 △그린 △글로벌 △상당 △안전 △나눔 등 7개 분야에서 총 108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유명인 진로코너서트,

글로벌 진로 특강, 청소년 아트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들에게 풍성한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기간 중 ESG 실천을 위해 대화용기 사용을 의무화 해 청소년들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참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차량 170대를 지원하며, 전북도 및 군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행사 전반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역량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응원받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는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부당 해임된 한일장신대 교수

3명, 가처분 승소로 교수직 복귀

학교를 비판해 부당 해임된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3명의 가처분 승소로 교수직에 복귀하게 됐다.

한일장신대학교 운동처방재활학과 교수 및 재학생, 한일장신대학교 대학원 체육학 원외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일장신대학교 지회, 한일장신대학교 교수협의회 등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은 해임된 운동처방재활학과 3명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교수들은 결정문을 받은 즉시 교수로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는 것.

이에 해당학과 학생 및 학부모들은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학교 측은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학 측은 2년 전에도 해당학과 교수 4명의 재임용을 거부해 교수들이 복귀한 5월 초에 수업이 진행됐다고 했다.

해당교수들은 “현재 이사장과 일부 세력이 지난해 9월부터 계획적으로 총장선출을 미루고 독단적 학교운영을 하면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제한 대학이 됐고, 기관인증평가 또한 미인증 대학이 됐다”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회복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는 총회가 추천한 새로운 총장을 하루빨리 선출해야 하며, 교육부에서 중징계가 내려온 입시비리 관련자와 과거 보직자들이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은성 기자

## 중위권 학생 학력 신장 돕는다

전북교육청, 초등 3~6학년 2000명 대상 학습코칭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위권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돕기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업성취수준이 ‘중’(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2~3수준)인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중위권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위권 교과보충 프로그램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지원에 비해 중위권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3~5명의 소규모 학급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 프로그램은 ‘전북특별한 클래스’와 ‘빛나라! 오늘해!’ 등 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교과 학습 보충은 물론이고,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학습코칭을 제공한다.

이에 학생들은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력 신장 프로그램인 전북특별한 클래스를 통해 자기 수준에 맞는 수업 및 평가 방식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학습플래너인 ‘빛나라! 오늘해!’를 작성하며 스스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학습 습관을 들이는 자기주도학습 방법도 익히게 된다.

이를 통해 중위권 학생들이 학력 신장의 성과를 경험하면서 스스로 배우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학업성취수준은 ‘하’(1수준), ‘중’(2~3수준), ‘상’(4수준)으로 분류된다.

교과보충 프로그램은 지난해 하위권 학생(1수준 또는 기초학력 미도달)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올해는 중위권 학생까지 확대됐다.

김윤범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중위권 교과보충 프로그램은 중위권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진정한 학력 신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글로벌 스마트 농생명 혁신 플랫폼 구축

전북대, 후니즈와 협약

디지털 브리딩 등 협력

한국형 NPEC 구축 목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후니즈(대표 김범수)와 손잡고 글로벌 스마트 농생명 혁신 플랫폼 구축에 본격 나선다.

6일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총장실에서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 농생명 연구 플랫폼인 ‘한국형 NPEC(네덜란드 식물 생태·표현형 분석센터)’ 구축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디지털 브리딩 및 디지털 파밍 기술, 대체 단백질 기술 등의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맺어진 것이다. 앞서 ㈜후니즈는 지난 3월 전북특별자치도 및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하며 스마트

농업, 바이오, 푸드테크 분야의 세계적인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WUR)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다.

전북대 또한 전통적 농업 분야뿐 아니라 첨단생명공학 및 스마트농업 분야를 연구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며,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해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디지털 브리딩 및 파밍 기술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후니즈의 자회사인 ㈜디디에스바이오도 공동 참여하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학교는 농생명 분야의 오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형 스마트 농업을 선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우리 지역이 글로벌 혁신 플랫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2025 흡연예방 금연실천 공모

전북교육청, 17~30일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2025 흡연예방 금연실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북교육청이 주관하고 전북학생금연지원센터(전북대 간호대학, 센터장 김지영)가 주최, 창의적 콘텐츠를 발굴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쇼츠, 포스터, 슬로건, 캐릭터 등 4개 부문다. 참가 대상은 도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며, 쇼츠는 2~5명이 팀을 이뤄 참가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나를 지키는' 흡연예방 금연실천 △'지구를 생각하는' 흡연예방 금연실천 △'모두가 함께하는' 금연 문화 △'준중과 배려가 있는' 흡연예방 금연실천 등 흡연예방과 금연실천의 의미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7~30일까지 전북학생금연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이메일(nodam2025@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